

# 스웨덴 고등직업교육 감독청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옘살라대학교 박사)

## ■ 머리말

스웨덴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인력을 적절히 공급할 목적으로 2009년 7월 1일자로 직업대학(Yrkeshögskolan) 제도를 도입하였다. 직업대학 제도의 출범과 동시에 현재 스웨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등직업교육을 관리·감독하려는 목적으로 고등직업교육 감독청(스웨덴명 Myndigheten för yrkeshögskolan, 영문명 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이 출범되었다. 이 글은 우선 스웨덴의 직업대학 출범 배경과 스웨덴 고등직업교육감독청의 임무, 역할 그리고 현 스웨덴 직업대학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 스웨덴의 직업대학 출범 배경

직업교육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각 나라마다 관념과 전통에 따라 직업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의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직업교육은 보통 직업 및 기술교육(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이라고 칭하며, 학생들에게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된다.<sup>1)</sup>

직업교육에 대한 이런 국제적인 정의에 따를 때 스웨덴의 직업교육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며 일반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둘째, 기업이나 기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직업교육, 셋째, 사업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소위 말하는 도제교육이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직업교육을 말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주요 직업교육 이외에 구직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성인교육, 노동시장정책 하에 이루어지는 각종 직업교육, 대학 수준에서 구직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교육도 포함된다. 또한 개별 기업에서 직원들의 숙련향상을 위해 직접 제공하는 교육도 직업교육에 포함된다. 다른 말로 하면 스웨덴의 직업교육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스웨덴 정부는 2001년 가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의 단기 고등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고등직업훈련 감독청을 설치하였다. 고등직업훈련 감독청의 업무는 2009년 직업대학 제도의 출범과 동시에 고등직업대학 감독청으로 이관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단기 직업대학의 출범에 대해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의 실험 기간을 거쳐 2009년이 되어서야 고등직업훈련에 대해 대학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2009년 직업대학의 출범은 최근 수년간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방법과 노동시장 조직이 변화하였으며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고급 노동인력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스웨덴 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직업교육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체계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직업대학의 출범은 또한 스웨덴에서 최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고등학교 졸업률에 맞추어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 우수한 직업인력을 보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 Jonas Olofsson & Ingela Schånberg(eds.)(2010), Yrkesutbildning igår och idag: om tillväxt, välfärd och kön, p.17.

2) Ibid., pp.17~18.

3) Ibid, chapter 8.

## ■ 스웨덴 고등직업교육 감독청의 임무<sup>4)</sup>

스웨덴의 고등직업교육 감독청의 임무는 크게 7개로 요약된다. 첫 번째 임무는 어떤 종류의 직업교육을 직업대학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노동시장의 고등인력 자원 요구와 직업대학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시장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과 주변 환경 변화 양태가 직업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결정된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직업교육기관에 정부의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다. 2012년의 경우 고등직업교육 감독청의 예산은 스웨덴 통화로 12억 크로나(한화 약 1,951억 원)에 달했다. 기업도 주로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현장지도자를 제공하는 형태로 실제로 직업대학에서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고등직업훈련 수준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네 번째로 노동시장에서의 기술 발전과 다른 새롭게 필요한 인력 분석 및 지역별 필요 인력을 분석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고등직업훈련, 위탁교육, 통역자 양성 및 직업 보충교육을 관리하는 임무를 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 직업대학 내에 신설된 교육과목·과정들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제공자들은 기업과 협력하여 직업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고등직업교육 감독청은 또한 스웨덴 내 유럽자격체계(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EQF)를 전담하는 기구의 역할을 한다. 현재 상당수의 노동인력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세계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스웨덴에서 외국으로 노동이민을 하기 전에 취득한 교육과 경력을 평가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스웨덴으로 노동이민을 오는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이런 노동이민자들의 교육 및 경력 평가를 전담할 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하였는데 정부는 고등직업교육 감독청에서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신설된 고등직업교육 감독청은 교육 제공자와 기업가 및 기업체들과 협력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교육 및 경력에 대한 정보 또한 그것들의 인정 방법, 인정 전략 등을 결정한다. 스웨덴 정부는 이런 협력 제도가 외국

4) Myndigheten för yrkeshögskolan, 2013, 내부자료 및 home page 참조

에서 취득한 교육 및 경력을 평가할 기본 조건 및 능력 향상에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직업대학 제도 출범 이전에 취득한 교육 및 경력 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고등직업교육 감독청은 국영 고용센터(The Swedish Public Employment Service), 대학교육 감독청(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Higher Education), 학교 감독청(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및 대학 서비스 공사(The Swedish Agency for Higher Education Services)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직업대학 제도하의 고등직업훈련은 정부 산하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일반대학,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직업교육기관 또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기관들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2012년의 경우 전체 직업대학 교육제공 법인 수는 총 227개인데 그 중 민간 교육기관이 120개(51%), 소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99개(44%), 대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7개(3%)이며,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단지 1개(1%)에 불과하다.<sup>5)</sup>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직업대학교육은 대다수가 민간 교육기관으로, 직업대학 감독청에 교육 제공을 신청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교육 허가를 내주고 있다. 교육 허가 시에는 현재 필요한 기술 분야와 미래에 필요한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며, 또 앞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 능력을 높이는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 스웨덴의 직업대학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 스웨덴의 직업대학 제도<sup>6)</sup>

2009년 7월 1일에 출범한 직업대학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가진 스웨덴인들에게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직업대학 제도는 고등직업훈련에 대한 보충교육, 특정 직업에 필요한 보충교육, 성인들을 위한 수공업과 관련 견습생 제도, 질 높은 전문 직업교육, 질 높고 법적으로 안전한 교육 제도 도입 등의

5) Myndigheten för yrkeshögskolan, Årsredovining 2012

6) Myndigheten för yrkeshögskolan, 2013, 내부자료 및 home page 참조

모든 개념을 포함한다. 법적으로 안전한 직업교육은 정부가 직업교육의 수준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sup>7)</sup>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직업대학 제도하에 설치된 교육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동시에 직업대학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자의 실제 능력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참가자가 실제로 직업대학에서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학교 경영자가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 교육의 문의 관대하게 열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웨덴에서 직업대학에 참가하려면 물론 스웨덴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 분야를 보면 실제로 몇 개 분야에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은 가장 인기 있는 10대 직업교육과 그에 등록된 학생 수를 보여준다.

직업대학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성별을 볼 때 양성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한쪽의 비중이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리직, 보건직, 행정직 등에는 여학생들이 대부분인 반면 건설,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남학생이 대부분이다.

<표 1> 10대 인기 직업교육과 등록된 학생 수

(단위 : 명)

직업교육 프로그램명	등록 학생 수
경리직	2,817
판매직 (B2B)	2,564
보건 · 행정관리직	1,831
판매직 (B2B) IT 산업 분야	1,554
구매직	1,283
전문간호사 보조직	1,174
요양시설 근무 보조직	1,020
건설현장 지도자	1,011
치과 간호사/보조간호사	902

자료 : 스웨덴 직업대학 감독청 내부 자료(2013).

7) 스웨덴에서는 아직까지 기술자에 대한 국가검증자격고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직업대학에 등록된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9.5세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대학교육이나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경력의 변화를 원하거나 또는 더 같은 직종에 있어서도 더 높은 직급으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대학 제도에 포함되는 교육은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제공될지는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미 교육 제공자가 직업대학 감독청에 공공 재원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사업주가 교육 내용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직업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수시로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8, 9월에 시작하며 입학 신청서 마감일은 보통 4~5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직업대학 제도가 기존의 대학 제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강조할 사항은 직업대학 제도와 기존의 대학 제도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학문적 연구에 관련된 교육이며 또한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직업대학 제도에 제공되는 교육은 우선적으로 물자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한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직업대학 제도에 제공되는 교육은 전통적인 과학적인 지식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 대신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실용적인 직업과 관련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스웨덴의 경우 직업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일반대학으로 자동 이동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직업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학점 이동 가능 여부는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이 직업대학 제도를 통해 습득한 지식은 통일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야 하며 또한 가능하면 유럽연합 내부와 외부 노동시장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등직업교육 기간은 최저 6개월이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1년 또는 2년간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직업대학 제도하에서 20주간(6개월간) 전적으로 교육에만 전념하였을 경우 100학점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최소 200학점을 이수해야만 기본직업대학졸업장(Diploma in Higher Vocational Education)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원하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고등직업대학 졸업장(Advanced Diploma in Higher Vocational Education)을 이수할 수 있는데 이 고등직업대학 졸업장은 최소 400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 400학점 중의 최소 25%는 현장 실습(LIA: Lärande i arbete, 영어로 OJT)을 통하여 취득해야 한다. 현장 실습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선 교육 참가자는 현장 실습을 통해 자신이 미래에 종사할 직업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실습을 제공하는 기업주는 미래 인재 양성을 할 기회를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직업대학 졸업학점에는 본인 스스로 수행한 프로젝트로 취득하는 학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2009년 직업대학 출범 이후 고등직업대학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의 수는 16,044명이며, 2010년에 17,216명 그리고 2011년에는 17,379명으로 고등직업대학 프로그램 참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8)</sup>

직업대학 참가자들의 졸업자 비율은 교육 프로그램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2>는 교육

<표 2> 직업대학 교육 분야별 졸업자 비율

(단위 : %)

교육 분야	졸업률
일반기업, 상업 및 행정	72
엔지니어링, 제조업	64
보건, 사회복지	68
정보, 통신기술	58
도시계획, 구도 엔지니어링	62
호텔, 레스토랑, 관광, 여행, 레저	73
예술, 마스미디어	77
교통서비스	67
농업, 조경, 임업, 어업	58
교육관련	85
체육, 신체복지, 헤어, 미용	73
보안서비스	74
환경보호	49
언론, 정보	72
법률	18
기타	90

자료 : 스웨덴 직업대학 감독청 내부 자료(2013).

8) 스웨덴 통계청 SCB, Utbildningsstatistisk årsbok 2013.

분야별 졸업자 비율을 보여준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졸업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졸업률이 낮은 이유를 든다면 현장 실습 과정에서 본인이 선택한 직업교육이 적성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업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교육비 부담은 없지만, 참가자는 일반대학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필요한 전공 서적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스스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사항은 일반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업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모두에게 중앙 학자금지원위원회(스웨덴명 Den centrala studienämnden: CSN, 영문명 Swedish Board for Study Support)를 통해 학자금(융자금 및 무상 원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진다.

2011/2012년 학사연도를 볼 때 직업대학에서 전국적으로 약 1,000가지의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물론 인구 집중 지역인 스톡홀름, 예테보리 및 말뫼 등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대부분의 직업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2011/2012년 학사연도를 볼 때 교육기간 구분 없이 직업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는 40,700명이다. 이 수를 2011/2012년 학사연도에 스웨덴의 수도에 위치한 스톡홀름 대학교 전체 등록 학생 수가 66,944명인 것과 비교할 때 전체 직업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가 한 개의 대학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 직업교육 제도에 대한 평가

고등직업교육 감독청은 지난 수년간 정부의 재원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1년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정부가 어떤 직업 분야에 교육투자를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한 정책 자료가 되고 정부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직업대학 감독청의 업무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또한 교육기관들이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한 결정에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업대학을 졸업한 학생 10명 중 9명이 고용상태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고등직업대학 졸업장을 취득한 자들 10명 중 5명이 본인들이 공부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등직업대학 졸업장을 취득한 자들 중 거의 4분의 3이 개인 사업을 하거나 고용이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대학 감독청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라고 해석하면서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육과정 중에 이미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해 이 수치는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직업대학을 졸업한 학생 10명 중 9명이 고용상태라고 응답한 것에는 사실상 졸업 후 전직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예전 직업으로 돌아간 많은 수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명 중 6명이 교육 종료 이후 취업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sup>9)</sup>

## ■ 맺음말

스웨덴에서 직업교육 제도를 도입한 지는 이제 4년 남짓하다. 직업대학 제도 도입 이전에도 고등직업훈련을 하는 민간 교육기관들이 상당수가 존재했다.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정부가 직업대학 제도를 통해 이들 민간 교육기관들에게 재원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교육을 더욱 통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등직업교육 감독청이 발표한 직업대학 출신자들의 취업 성공률과 실제 취업률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실이 그러함에도 스웨덴의 중도우파 정부는 앞으로 몇 년간 직업대학 제도 운영을 위해 고등직업교육 감독청 예산을 추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스웨덴에서 최근 도입한 직업대학 제도가 얼마나 성공적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몇 년 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KLI**

9) Svenska Dagbladet(2012. 11. 5), “Studenter luras av förskönade siffror”.